



Greetings! My name is Sister Miriam Richard Soisson. I am a native born resident of Bellevue, Pennsylvania - a suburb of Pittsburgh. I attended Assumption Parish and was taught by the Sisters of St. Joseph in grade school. Benedictine Sisters at St. Benedict Academy provided my high school education.

How did I meet the Sisters of Charity? My sister, Sister Mary Clifford, SC entered the community when I was in fifth grade. She and my brother Dick were the closest age-wise so I missed her presence. My family was large as my parents had nine of us, but only seven survived to become adults. Living the Faith was a way of life in our home which set a good example for all of us.

Upon graduation from St. Benedict's I chose to attend Seton Hill University. I loved it so much I petitioned to enter the Sisters of Charity my sophomore year. As circumstances allowed, I did graduate from Seton Hill University with a B.A. degree. Many times I felt fortunate to have finished at Seton Hill University which provided a superb education.

I entered the Sisters of Charity on September 8, 1948 so I'm working on my 73<sup>rd</sup> year as a member of the community. By 1951 our group was ready to go on mission full time. My first assignment was St. Philip in Crafton, Pennsylvania as a fourth grade teacher. By October 1953 I was assigned to the eighth grade. I remained in education and administration work for 36 years.

In 1965 I was missioned to Tucson, Arizona and while there I attended the University of Arizona to do graduate studies. I got my degree in Guidance and Counseling with the hope that one day I could be a counselor. While in Arizona I was asked to go on an exchange program with the Sisters of the Holy Family in New Orleans, Louisiana to help integrate their schools. These were wonderful years with the Black community. In the summers I'd return to Arizona to complete my counseling studies.

In the 1980's I was told to update my counseling so I studied to become a Reality Therapist Certified. I also took work to be involved in bereavement cases. In 1987 I was given a counseling position at St. Mary-Basha Elementary School in Chandler, Arizona. My principal, Sister Mary Norbert Long, had a unique plan for the counseling program. I was to be the counselor for the students first, and I could also work with anyone who lived with the student plus the faculty. It was great to have an all-inclusive program for 21 years as the school counselor.



November 23, 2008 I returned to Caritas Christi, our motherhouse, to retire. By the end of that year I was asked to help with the St. Elizabeth Ann Seton Guild. This program provides spiritual services for lay and religious. There are cards for various occasions that include the daily prayers of the Sisters plus 28 Masses a year for the person enrolled. Less than a year later I was assigned to be responsible for the program which I've managed for 12 years so far.

I'm grateful to God for my vocation as a Sister of charity plus all the various ways I've been able to serve God through others.



안녕하세요! 미리엄 리처드 소이슨 Miriam Richard Soisson 수녀입니다. 저는 펜실베이니아주의 피츠버그 교외지역인 벨뷰 Bellevue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승천 본당 Assumption Parish에 다녔고 초등학교에서는 성 요셉 수녀회 the Sisters of St. Joseph 수녀님들이 가르치셨어요. 고등학교는 성 베네딕토 아카데미 St. Benedict Academy에서 베네딕토회 수녀님들께 배웠어요.

사랑의 씨튼 수녀님들을 어떻게 만났냐고요? 제가 15살 때 저의 언니 메리 클리포드 Mary Clifford 수녀님이 먼저 사랑의 씨튼 수녀회에 입회했어요. 형제들 중에 메리 언니와 오빠 딕이 저와는 나이 차이가 적고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저는 언니가 무척 그리웠어요. 우리 가족은 부모님 슬하에 9명의 자녀가 있는 대가족이었는데 그중에 7명 만이 자라 성인이 되었지요. 신앙생활이 우리 가족의 삶이 방식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성 베네딕토 아카데미를 졸업하고는 씨튼 힐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저는 학교가 너무 좋아서 2학년 때 수녀회 입회를 청했어요. 모든 상황이 잘 이루어져 씨튼 힐 대학교를 졸업했고, 훌륭한 교육을 하는 씨튼 힐 대학교를 졸업한 것이 행운이라고 많이 느꼈지요.

1948년 9월 8일 수녀회에 입회하여 이제 수도생활 73년을 맞았습니다. 1951년까지 저희 그룹은 사도직을 나가기 위한 준비를 했어요. 저는 펜실베이니아주 크래프톤 Crafton의 성 필립보 St. Philip 학교의 4학년 교사로 첫 파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53년에 8학년을 맡게 되었지요. 36년 동안 교육 및 행정직에서 사도직을 했습니다.



1965년에는 애리조나주 투산 Tucson, Arizona으로 파견을 받아 애리조나 대학교 석사과정에 다녔습니다. 언젠가는 상담사가 되겠다는 희망으로 생활지도 및 상담 Guidance and Counseling 학위를 받았습니다. 애리조나에 있는 동안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New Orleans의 성가정 수녀회 the Sisters of the Holy Family와의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성가정 수녀회의 학교 통합을 도왔습니다. 흑인 수녀님들의 공동체와 함께 보낸 멋진 시간이었지요. 이 일을 하면서도 여름이면 상담 공부를 마치기 위해 다시 애리조나로 와서 보냈습니다.

1980년대에는 상담 자격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현실요법 치료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별한 사람들의 케이스 연구에 참여하여 일을 했지요. 1987년엔 애리조나주 챌러리의 성 메리 바샤 St. Mary-Basha 초등학교에 상담 교사로 파견을 받았습니다. 교장 수녀님인 메리 노버트 롱 Mary Norbert Long 수녀님은 상담 프로그램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상담 교사로서 저는 우선 학생들을 위한 상담을 했고 또, 학생들이나 교직원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상담을 할 수 있었지요. 21년 동안 그 학교의 상담사로서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2008년 11월 23일, 은퇴를 하고 모원인 가리타스 크리스티로 돌아왔습니다. 그해 말, 성녀 엘리사벳 앤 씨튼 길드 St. Elizabeth Ann Seton Guild에 협조 요청을 받았어요. 성녀 엘리사벳 앤 씨튼 길드는 평신도들과 종교인들을 위한 영적 봉헌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에 등록된 사람을 위한 우리 수녀님들의 매일 기도와 연간 28회의 미사를 포함한 다양한 영적 봉헌 카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직의 협조 요청을 받은 지 일 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 프로그램의 책임을 맡게 되었고 지금까지 12년 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의 수녀로 불러 주신 성소와 더불어 다른 이들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하느님을 섬길 수 있었던 삶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랑의 수녀로 불러 주신 성소와 더불어 다른 이들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하느님을 섬길 수 있었던 삶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